



# 종로!! 대한민국의



## 도심 속 현장의 우수사례 표본을 꿈꾼다.

신동아건설 신문로 2구역 제5지구업무시설 신축현장

취재 | 최종덕 기자



### 안전, 모두가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

이곳의 모토는 '다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 무재해 운동 구축'이다. 이 모토를 중심으로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활동은 근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더 세밀하고 꼼꼼한 안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관련자를 안전활동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이곳에는 총괄 안전관리자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면 각각의 공정책임자와 근로자가 자신들의 공정에 맞춘 세부적인 안전활동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안전 점검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현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은 물론 현장에 대한 소속감도 강해졌다.

### 실시간 안전관리 앞에 빈틈은 없다

건설현장의 특성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있다. 사전에 잘 세워진 안전관리 계획도 변하는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곳은 '실시간 안전관리'를 표방하고 있다. 시공과 안전활동을 나눠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시공과 안전을 동시에 추진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시공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안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 실시간으로 안전점검과 중복 확인을 한다.

아울러 현장에 맞게끔 안전시설물을 개선, 보완, 도입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이 작업만을 위해 별도의 시설팀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CCTV설치를 들 수 있다. 지하층 및 지상층의 취약지역에 안전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안전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협력업체와 함께 공동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과 위험요인들을 수시로 확인·개선한다.

지상·지하 모든 층에 추락방지망, 지상 전층에 수직보호망 설치하는 기본, 각종 개구부에 안전망과 통로 주변에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또한 철골부재이동시 추락위험이 있다는 판단 하에 안전사다리 형식의 알류미늄 계단을 별도로 제작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타워풍속계 및 타워기사 승강로를 별도로 설치했다.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단실 및 테크 상부, 그리고 지하층 철근 작업구간에 발판 및 전도방지시설을 설치해놓았다.

###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안전이 강해진다

이곳 현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감성안전이다.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해 안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파밀리에 패밀리 스마일 운동'이다. 이는 지적에 앞서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칭찬하고, 인사하자는 것으로, 현장에 가족같은 분위기와 자율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서울의 중심 종로구, 한국의 선진 경제를 상징하는 각종 건축물이 모여 있는 곳. 우뚝 솟은 건물들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하며 이곳을 오가는 수 십만 행인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지금 이곳에선 또 하나의 우수한 건축물이 배일을 벗고 가도에 찬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동아건설 신문로 2구역 제5지구업무시설 신축현장. 이곳을 훑으면 팔팔 날리는 훈한 건설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할 것이다.

외관에서 내관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정리된 모습은 현장을 방문한 이들이 '이 곳이 건설현장이 맞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또한 '조금의 진동과 약간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도심 속 현장에 맞는 공법을 도입, 조용함 속에 철저한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현장은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현재 4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0월을 준공일로 예정하며, 준공까지는 대략 10개월 남짓 남은 상황, 현재까지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정에다 여러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건설현장의 가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재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 대해 이곳 현장의 임직원들은 현장 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와 '감성안전문화'를 꼽는다.

아울러 우수근로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파밀리에 장학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당연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원청업체, 협력업체 모두 이 장학사업에 참여하여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밀리에 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안전과 인간 중심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삭막한 건설현장 속에서 모두가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가치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동아건설 신문로 2구역 제5지구업무시설 신축현장'이 남은 기간까지 무재해 기록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



김 석 형 현장소장

지난해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건설업계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넘쳐났던 것은 물론 일부 건설사는 주주물량 자체가 없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2010년도 그렇게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세가 어둡다고 낙담을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내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의 해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형상을 말할 때 호랑이 형상이라고 합니다. 2010년 한 해는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몸에 담으시고 호랑이가 포효 하듯이 당차게 꿈을 이뤄 가시길 바랍니다.



임 창 수 안전관리자

새해에는 저를 먼저 다스리고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작은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날 까지 처음 보직을 받았을 때의 결연한 마음을 갖고 남은 기간 동안 무재해를 꼭 달성할 것입니다. 무재해를 떠나서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가족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이 바로 스마일 운동입니다. 웃으면 모든 것이 잘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우리 모두 웃으면서 무재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공하는 그날까지 새해에도 근로자분들과 그 가족 모두를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